문화 ▾

[출판단신] 장석주의 '나는 문학이다' 外

2009-09-12 [16:24:00] | 수정시간: 2009-09-14 [14:16:40] | 17면

○...시인 장석주가 우리나라 [현대](#) 문학사를 인물 중심으로 개괄한 교양서 '나는 문학이다'(나무이야기/4만8천원)를 펴냈다. 춘원 이광수에서 현재 활동 중인 배수아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표적 작가 111명을 선별해 그들의 2천여 개 작품을 연대별로 다루었다.

논문 14편으로 보는 북한 문제

○...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안보연구총서 '북한, 어디로 가는가?(김연철 외 지음/플래닛미디어/2만5천원)를 펴냈다. 14인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'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한반도 문제'라는 주제 하에 식량, 권력[구조](#), 후계자, [국제](#) 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을 모았다.

'고든 차일드의 [사회](#)고고학'

○...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시리즈 제4호로 '고든 차일드의 사회고고학'(토머스 패터슨·찰스 오서 역음/김권구 옮김/사회평론/2만원)이 발간됐다.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자로 인정받으면서도 독일 나치즘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고든 차일드가 1935~1958년 발표했던 글들을 모았다.

인상주의 화가 마네와 모리조의 전기

○...출판사 글항아리는 '예술가의 삶과 진실' 시리즈 제 5·6편으로 '이해받지 못한 사람, 마네'(루이 피에라르 지음/정진국 옮김/1만6천원)과 '인상주의의 숨은 꽃, 모리조'(아르망 푸로/정진국 옮김/1만3천원)를 각각 펴냈다. 천재성에 비해 삶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마네의 전기, 또 마네의 동생의 아내이나 마네를 인상주의로 이끈 여류화가 모리조의 그림 [세계](#)를 다루었다.

[일본](#) 연구 잡지 '일본비평' 창간

○...서울[대학교](#) 일본연구소(소장 한영혜)가 일본 연구 잡지 '일본비평'(그린비/1만7천원)을 창간했다. [국내](#)의 일본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 창간 취지. 창간호 특집 주제로 '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미국'을 다루었다. 전후 점령과 군정으로 시작된 미국의 영향력이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 사회에 드리운 그림자를 분석했다.